

지역 소식통



고창군,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시장상인 격려

고창군이 설 명절을 앞둔 6일 고창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군 공무원과 유관 단체인 여성단체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심덕섭 군수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설 제수용품과 생활용품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섰다.

군에서는 명절 대목장의 혼잡을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8일까지 부서별로 장보기 행사와 전통시장 내 식당 이용하기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류 10%, 카드·모바일 15%로 할인율을 높이고 100만원까지 구매한도를 상향하여 특별할인판매를 시행하여 고물가 시대 군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설 연휴 응급 진료체계 운영

부안군은 설 연휴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응급환자 진료와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부안성모병원과 혜성병원은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병·의원 10개소와 약국 14개소 등이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군민들의 진료 및 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민행복도시 조성 앞장'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 설맞이 한정 고창사랑상품권 100만원으로 상향 등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폭넓은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모든 군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특히 농·어촌 혼합도시의 특성상 농민, 어민, 다문화, 청년 등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

2024년 고창군의 최우선 생활여건 개선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다. 2월 설맞이 한정으로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할인율도 지류 10%, 카드 15%까지 할인율을 상향하여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고창사랑상품권 판매액이 8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부분 소비가 이뤄져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급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가뭄 속 단비로 자리잡은 '소

상공인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도 기존 3000만원 한도, 5%이차보전사업에 더해 5000만원한도 1년거치 4년상환 3%이차보전사업을 추가로 확대 시행하여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차보전은 고금리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주면서 사업체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화재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화재에 대한 지원금액은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이상 소실)인 경우 800만원 △반소(건물30%이상~70%미만 소실)인 경우 500만원 △부분소(10%이상~30%미만 소실)인 경우 200만원을 지원한다.

'아기낳고 키우기 좋은 고창'을 위한 여러 사업도 추진된다.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가 확대 지원된다. 올해는 결혼 3개월 이내 예비부부

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으로 확대하고, 요건을 갖춘 사실혼 부부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보건소 산전 건강검진은 주민등록상 고창에 주소지를 둔 예비맘에게만 지원돼 왔었다. 이에 더해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부모급여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1세 아동 부모급여는 기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부터 지원단가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됐다. 신혼부부·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출잔액의 2%내 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이 자격요건을 완화했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월 최대 20만원)' 등이 시행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경제적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군민의 삶 구석구석 전해지는 한 해를 만들겠다"며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의 대장정을 마치고 사랑의 온도 202.2도를 기록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정읍시, 사랑의온도 202.2도 달성

'희망2024나눔 캠페인' 모금액 7억 1870만원 기록

정읍시 '희망 2024나눔 캠페인'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의 대장정을 마치고 사랑의 온도 202.2도(모금액 7억 1870만원)를 기록하며 62일간의 아름다운 동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희망2024 나눔 캠페인'은 이웃사랑을 위한 범국민 모금 운동으로 목표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가 1°C씩 올라간다.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경기 불황이 겹쳐 모금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인만큼 예상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외된 이웃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라고 생각한 정읍시민과 기업들은 한마음으로 사랑의 온도를 높여갔다.

다. 결과 7억1870만원을 모금해 목표액 3억5500만원 대비 202.2%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둬 시민들의 팔팔 끓는 이웃사랑의 지력을 뽐냈다.

이 기간동안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대한불교조계종 내장사, 녹두한우농조합법인, 정읍산림조합에서 500만원, 주식회사 거안(대표 박영춘)에서 1000만원, (주)에이스안전유리에서

1500만원, 농협은행 정읍시지부에서 2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통큰 기부를 한 기업들도 있었으나 특히 이번 캠페인은 시민중심의 자발적인 참여가 빛났다. 노인일자리사업 팀장단 62만원, 칠보면 백암초등학교 학생들의 플리마켓 수익금인 113만원, 수곡초등학교 학생들이 88만원, 한솔초등학교 학생들이 50만원을 기부하는 등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총 2489건의 기부로 사랑의 온도탑 온도를 끌어 올렸다. 이외에도 각종 단체와 협회 등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뜨거웠던 '희망 2024나눔캠페인'을 마무리했다.

캠페인 모금목표 달성에는 23개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도 컸다. 시민들과 기업들이 성금을 기탁하는 데 청구 역할을 하며, 각 읍면동의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모금된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 취약한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등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이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누에타운, '생동감 있는 체험공간 변신'

오늘부터 관광객 첫선

누에와 190년 양잠산업의 전통을 간직한 '부안누에타운'이 내부시설 정비를 마무리하고 오는 2월 7일부터 관광객에게 첫선을 보인다.

부안군 변산면 유유마을에 위치한 '부안누에타운'은 유용곤충인 누에와 양잠산업을 전시·홍보·교육시설로 2010년 5월 개관하였으며, 2012년에는 누에 및 곤충 과학관으로 등록, 연 10만여 명이 찾는 부안군 대표 관람시설이다.

하지만 개관 후 10여 년 동안, 기존 전시물을 변화 없이 운영하여 관광객

의 흥미가 저하되어 관광객이 축소되었고, 이에 부안군은 체험·해설적 요소가 많은 전시물을 디지털영상 콘텐츠화하는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사업 공모사업을 과기부에 응모해 총사업비 5억 원을 선정받아 직원들과 함께 새롭게 전시물을 신규 구축했다.

부안누에타운은 새롭게 로비와 3개관(과학관, 탐험관, 체험관)의 기존 전시물을 과감하게 실감형 영상콘텐츠화 재생기능을 도입하여 더욱 생동감 넘치는 전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부안누에타운은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장 만족도 설문조사

등 고객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타 전시관의 추진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주요 신규개선사항으로 누에타운 홍보영상과 누에한살이, 누에고치 만드는 영상 등 영상콘텐츠를 새로 구축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방문객에게 생동감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전시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부안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분에게 사랑받는 '부안누에타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정읍시민장학재단, 지난해 940명 장학금 지급

총 11억680만원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지난해 대학생 940명에게 총 11억 6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장학재단은 지난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학수 이사장 등 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 결산(안) △기

부금 사용승인 △2024년 정읍장학속 신규입사생 선발 확정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시민장학재단은 지난해 대학교 신입생장학금 790명, 우수인재장학금 150명에게 총 11억 68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정읍장학속 운영에 7억 8000여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지난해 시민 기탁금 1억 6000여만원과 올해 시 출연금 25억 6000여만원을 사용승인 받아 올해 장

학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장학사업을 1개를 추가하고, 8억 2800만원이 증액된 총 29억 8500만원으로 4개의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정읍장학속 입사생 선발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아 총 93명(재입사생 38, 신규입사생 55)을 선발했다. 미달된 인원은 추가모집할 예정이다.

이학수 이사장은 "기존 장학사업 및 올해 신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미래를 선도할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설 명절 맞이 복지시설 단체 위문품 전달

정읍시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날 내장상동 소재 은혜의집, 초산동 소재 노인복지요양원을 방문해 백미(10kg) 23포와 과일(사과, 배) 26상자를 전달했다. 또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학수 시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노고가 더해지는 시기"라면서 "민족 대명절 설날만큼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며 풍성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같은 날 송곡현 부시장 또한 신태



인 소재 에덴요양원과 천사마을을 방문해 백미(10kg) 20포와 과일(사과, 배) 24상자를 전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